

## MBC, 한겨레 보도에 대한 CLS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

2024. 9. 9.

고인은 설계감리기업에서 현장 관리자로 10년 넘게 재직 중인 분으로, 고인 배우자의 추천으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(CLS) 캠프에서 아르바이트로 올해 총 3회(8.12, 8.17, 8.18) 근무하셨습니다. 3번째 근무일에 프레시백 자동 세척 등 작업 중 2시간 만에 의식을 잃어 구급차를 통해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.

그럼에도 불구하고 MBC 등은 고인의 본업에 대한 근로강도 및 근로시간, 부검결과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,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CLS 업무로 인한 과로사라고 일방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.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원인도 무시하고 CLS에 대한 맹목적인 비난 목적의 보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.

### <고인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실관계>

일부 언론사 보도	사실관계
본업이 따로 있는데 CLS의 과로사?	<b>10년 넘게 설계감리기업</b> 현장 관리자 재직 중으로 <b>휴일에 3회 CLS에서 아르바이트</b> 수행함
과중한 업무 때문에 사망?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고인의 배우자 요청으로 업무 강도 낮은 프레시백 자동 세척 업무에 배정</li> <li>고인의 업무량은 평균 이하였음</li> </ul>  <p>(사진: 프레시백 자동 세척 업무)</p>
쉬지 못하고 일했다?	법정 휴게시간의 <b>3배에 달하는 휴게시간</b> 부여
특별한 지병이 없었다?	MBC 보도상으로도 <b>고혈압, 이상지질혈증</b> 확인됨. 부검결과도 확인하지 않음
CLS가 합의금 제시했는가?	CLS, 산재 신청 안내하고 위로금 등 지원하겠다고 했으나, 유족은 설계감리기업 10년치 연봉 요구

한편, MBC 등 일부 언론 및 민노총은 가전가구 전문설치업체 대표의 극단적인 선택을 CLS의 과로사로 허위 보도 및 주장하였으며, 주간에 단기간 근무한 제주 헬퍼 고인의 유가족이 고인의 죽음에 대해 언론과 노조가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으나 자신들의 악의적 목적을 위해 왜곡 보도한 바 있습니다.

안녕하십니까 [redacted] 유가족입니다.

먼저 저희는 아버님과 관련한 7.25 [redacted] 의 단독보도 이후 잇따르는 무분별한 추가보도 및 민주노총의 기자회견 등 일체 멈추어달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.

아버님을 보낸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유가족들이 끊이지 않는 관련보도와 기자회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.

유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주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이만 줄입니다.

CLS와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지마식 과로사 주장을 멈추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, 일부 언론의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습니다.

취재 문의 [media@coupang.com](mailto:media@coupang.com)